

1년 4개월만에 다시 단 태극마크...‘알 라이언’ 수비수 조용형 본지단독 인터뷰

카타르서 2년...‘짬통 전쟁’ 적응 끝!

카타르리그에서 뛰고 있는 조용형(29·알 라이언)이 18일 귀국했다. 최근 2011~2012시즌을 마친 그의 신분은 조금(?) 바뀌었다. 다시 태극전사다. 작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 이후 1년 4개월여 만의 국가대표팀 복귀. 대표팀 최강희 감독은 17일 스페인 평가전(31일 스위스 베른·한국시간)-2014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카타르 원정(6월 9일)-레바논 홈(6월 12일)으로 이어질 A매치 3연전에 나설 26명의 명단에 조용형을 포함시켰다. 2010년 7월 카타르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조용형은 성공적인 제2의 축구 인생을 보내고 있다. 7월 말이면 계약이 종료될 알 라이언에서 보낸 2년은 자신의 위치와 미래를 살필 수 있는 계기였다. 조용형은 대표팀과 소속 팀 찾기는 또 한 번의 출발선에 서게 된 셈. 인천국제공항의 커피숍에 마주앉아 두 가지 화두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카타르 원정, 벌써 30도 더위와의 싸움
200만달러 중동 잔류? 유럽 진출? 고민
두번째 월드컵·새 리그...도전은 계속된다**

●태극마크 & 카타르

-오랜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갑자기 대표팀 명단에서 사라졌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카타르와 한국을 오갈 기회가 적다보니 컨디션은 좋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각오로 돌아왔다.”

-대표팀 내 중앙 수비수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경쟁을 해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내게도 장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힘과 적절한 커버링으로 동료들을 돕겠다.”

-대표팀이 카타르 원정을 앞뒀다.

“날씨가 관건이다. 벌써 30도에서 경기를 뛰다. 몸 관리가 필요하다. 습기 많은 밤이 되면 36도까지도 올라간다. 카타르전은 에어컨 시설이 있는 알 사드 스타디움인데, 작동되면 30도까지는 낮춰진다. 더위와 싸움이다. 알 라이언에 브라질에서 귀화한 파비오 세자르라는 동료가 있는데, 농담 삼아 ‘설마 50도에서 한 번 뛰어보자’고 하더라. 갓 카타르에 데뷔했을 때는 ‘뭐, 이런 날씨가 있나’ 싶어 혼이 나갈 지경이었는데 이제 적응이 많이 됐다.”

-카타르 축구가 급성장했다.

“용병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좋다. 얼마 전에는 라울 곤잘레스가 알 사드에 입단했다. 이제는 꽤 유명한 리그가 됐다. 카타르대표팀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이미 5월 초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프로리그 일정이 남아있었는데도 대표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카타르대표팀에 용병들이 많은데.

“카타르를 지휘하는 브라질 출신 아우투오리 감독과 알 라이언에서 1년 간 함께 했다. 아시아 축구를 잘 알고 있고 선수들의 심리를 활용할 줄 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용병들

이 많아 국가에 대한 애정은 적어 보인다. 멘탈이 약한 느낌이다.”

●축구 인생 & 미래

-카타르 진출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말라가 진출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

“맞다. 고민이 많다. 스페인에서 비 유럽권 용병은 3명밖에 될 수 없다. 지난 시즌 성적도 좋다. 더욱이 용병들 모두 주전으로 뛰고 있다. 현 상황으로선 말라가에 이적한다고 해도 출전 확률이 적은 것 같다. 내 나이가 적지 않다. 선수는 뛸 수 있어야 한다.”

-오퍼는 많든지, 계획은 있나?

“팀에선 재계약을 원한다. 카타르 팀들과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오퍼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리그도 염두에 두고 있다. 꼭 스페인이 아니더라도 기회가 닿으면 프랑스, 네덜란드 등 중소 리그에서 ‘뛸 수 있는 팀’을 선택하고 싶다.”

(7월 FA 자격이 될 조용형은 카타르 스포츠 클럽과 카타르 알 코아에서 러브 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 라이언에서 세금을 제외한 연봉 160만 달러를 받은 그에게 200만 달러를 제외한 팀도 있다. 중동 잔류와 유럽 진출을 놓고 고심 중이다.)

-선택의 기로에 있다. 축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린 시절은 명예를 얻고 싶었다. 국가대표가 목적이었다. 대표팀이 되고, 꿈에 그린 남아공월드컵에 출전하고 나니 목표 의식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다른 리그에 도전하고 싶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도전이 필요하다.”

-브라질월드컵에 대한 기대도 클 것 같다.

“2010년은 내 인생 첫 월드컵 도전이었다. 열렬했었고, 부담도 많았다. 당연히 내 플레이에 만족할 수 없었다. 브라질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여류를 갖고 뛸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축구를 조금 알 것 같다.” 인천국제공항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조용형이 스포츠동아와 인터뷰에서 대표팀 복귀와 카타르 리그에서 된 소감 등을 얘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 남정현 기자

지동원, 귀국 하자마자 전남 직행 왜?

**대표팀 소집전 컨디션 조절
정해성 감독 조언에 다시 용기백배**

힘들 때 주변의 따스한 관심은 큰 힘이 된다. 존경하는 스승이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지동원(선덜랜드·사진)에게는 K리그 시절 한술밥을 먹은 전남 정해성 감독이 그렇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선덜랜드 유니폼을 입은 지동원은 시즌 초반만 해도 꾸준히 출

전 기회를 얻었다. 특히 작년 9월 첼시전에서 종료 직전 터뜨린 일명 ‘버저비터 골’은 지동원이라는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기 충분했다.

하지만 약재가 생겼다. 그를 뽑아준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경질되고 마틴 오닐 감독이 부임하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평범한 기대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21경기에 출전해 겨우 2골 2도움을 기록했을 뿐.

최근 입국한 지동원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광양이었다. 17일 밤 광양에 도착한 지



지동원

동원은 정 감독에게 연락한 뒤 18일 팀 훈련에 참여했다. 국가대표팀 소집에 앞서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정 감독은 오랜만에 만난 제자를 보곤 뜻 깊은 조언을 해줬다.

“(박)지성이고, (이)영표도 처음 네덜란드 PSV에인트호벤에 갔을 때는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겨냈다. (지)

동원은 정 감독에게 연락한 뒤 18일 팀 훈련에 참여했다. 국가대표팀 소집에 앞서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정 감독은 오랜만에 만난 제자를 보곤 뜻 깊은 조언을 해줬다.

“(박)지성이고, (이)영표도 처음 네덜란드 PSV에인트호벤에 갔을 때는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겨냈다. (지)

동원이 너도 그럴 수 있다. 이미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다음 시즌을 정말 화려하게 빛내자.”

잔뜩 풀이 죽어있던 지동원도 그제야 어깨를 펴 수 있었다.

“(오늘) 감독님도, 구단에서도 절 이적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지동원은 이들 간 옛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주말에 다시 서울로 갈 계획이다. 정 감독은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도 환하고 몸도 좋아졌다. 우리 팀을 항상 생각해주는 것 같아 기쁘다”며 웃었다.

남정현 기자

“K리그·ACL 2관왕 도전 지금부터 시작”

■성남 신태용감독, 야망은 ing

부진 딛고 리그 7위 상위권 도약 자신
ACL16강전 분요르크르와 대진 호재
“요반치치 살아나면 두려울 것 없다”

“K리그와 ACL 2관왕 도전? ing다.” 성남 일화 천마(42·사진) 감독이 화끈하게 말했다.

성남이 초반 부진을 딛고 살아나고 있다. 리그 7위까지 올랐고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

쉽고 힘든 시기에 요반치치가 한 건 해 줄 거라 보고 있다.”

-요반치치가 시즌 말까지 큰 변화가 없다면.

“그 때는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한다.”

-신 감독의 자율축구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선수들이 밤에 몰래 놀러 다닌다는 루머도 있었다.

“개이지 않는다. 성적이 안 좋으면 별의 별 소문이 다 돈다. 내 스스로 주관을 가져야지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신 감독

지고 힘든 시기에 요반치치가 한 건 해 줄 거라 보고 있다.”

-요반치치가 시즌 말까지 큰 변화가 없다면.

“그 때는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한다.”

-신 감독의 자율축구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선수들이 밤에 몰래 놀러 다닌다는 루머도 있었다.

“개이지 않는다. 성적이 안 좋으면 별의 별 소문이 다 돈다. 내 스스로 주관을 가져야지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성적 안 좋을 때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하더라. 이제 초반이라며 내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안정시켰다.”

-성남은 피스컵(7, 19~22)까지 치러야 한다. 살인일정이다.

“선덜랜드와 같이 좋은 팀과 경기하면 선수들이 배우는 것도 많고 자신감도 얻는다. 2009년 피스컵 때도 그랬다. 오히려 이런 때 더 치고나갈 생각이다.”

-29일 ACL 16강에서 홈에서 분요르크르(우즈베키스탄)와 맞붙는데.

“바라던 바다. 우리 선수들을 잘 알고 있는 K리그 팀보다 외국 팀이 낫다.”

윤택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K리그 13R 관전포인트

19일(토)

인천 vs 부산 오후 3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상대전적 6승 12무 5패(홈 기준) 중계 NBS(인천생)	홈에서 화끈한 공격 축구로 인기몰이 중인 인천 김봉길 감독대행. 그러나 최근 3무3패. 첫 승리 간절. 부산 최근 8경기(6승2무) 연속 무패. 인천이 부산의 수비를 뚫을 수 있을까.
대구 vs 대전 오후 3시 대구스타디움 7승 12무 9패 OMB 대전(생)	최근 홈 2연승의 대구와 2경기 연속 무패의 상송세 타고 있는 대전. 벨기에 출신의 골잡이 케빈 오리스(대전)와 대구의 브라질 트리오(레안드리뉴, 마테우스, 지넬슨) 대결도 관심.
광주 vs 서울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 1승 1패 OMB 광주(생), KBC 광주(생)	광주는 5경기 17실점한 수비가 걱정. 주전 수비수 유종현과 이용의 경고 누적 결장도 부담. 서울 최근 3연승. 3경기(1골3도움) 연속 공격 포인트 기록중인 물리나가 공격의 첨병.
전남 vs 제주 오후 4시(40분)광양축구전용구장 13승 17무 2패 SPOTV 2생, PTV, 야수 MBC(생)	최근 홈 3경기 연속 무패의 전남과 9경기(6승3무) 연속 무패의 제주. 전남은 지난 강원전에서 헤트트릭 기록한 제주의 자일과 산토스(1골2도움)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관건.

20일(일)

강원 vs 포항 오후 3시 강릉종합운동장 1승 1무 4패 CJ헬로비전 영상(생)	최근 4연패 부진에 빠진 강원 홈에서 최근 1무2패를 기록하고 있는 포항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할까. 포항은 원정 3연패를 기록. 포항 고무열과 박성호의 부진 탈출이 절실.
수원 vs 울산 오후 3시 수원월드컵경기장 19승 13무 21패 TV조선(생), T브로드수원(생)	13라운드 최고의 매치. 홈 7연승의 선두 수원과 4위 울산의 맞대결. 최근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기록 중인 울산 고슬기와 국가대표 발탁된 박현범의 중원 싸움도 볼거리.
경남 vs 성남 오후 5시 창원축구센터 3승 4무 7패	최근 5경기 무승(1무4패)의 경남과 조금씩 순위 올리고 있는 성남의 맞대결. 경남은 홈 5경기(1무4패) 연속 무승 및 홈 4경기 연속 무득점 등의 징크스 탈출이 시급.
상주 vs 전북 오후 5시 상주시민운동장 2패 SPOTV 2생, PTV	김치우 김재성 이성재의 공격 라인 살아나고 있는 상주. 최근 3경기(2승1무) 10골 넣으며 ‘다공’ 중인 전북. 지난 울산전에서 2도움 기록하며 맹활약한 전북 서상민의 활약 기대.

6명의 신인 기용...전남 '화수분 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화수분 축구'를 선언했다. 전남은 12라운드까지 진행된 K리그에서 6명의 신인 선수가 경기에 나서고 있다. 사이먼, 실바 등 용병들이 부상으로 빠져나간 자리를 신인들이 기화로 만들고 있다. 다른 팀 신인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출발은 박선용(23)이었다. 그는 3월4일 광양에서 열린 강원과의 개막전에서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선발 출전했다. 기대 이상이었다. 박선용은 주전을 꿰차며 11경기에서 풀타임 활약하고 있다.

정 감독은 심동은(22)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시즌 초반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3월24일 경남전에서 마수결이 끝을 터뜨렸다. 심동은은 11경기에 출전하며 2골을 넣었다. 활약이 지속된다면 박선용과 함께 유력한 신인왕 후보다. 12일 열린 상주전에서는 일본에서 뛰다 K리그로 전회한 김신영, 주성환이 연속 골을 터뜨렸고 손철민은 도움을 기록했다. 모두 신인들이다. 흥진기는 전남 수비진에 든든한 백업 요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신예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전남이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손해당업보험 심의결과 제2012-344호 (2012.3.5)

에르고다움 디자인팩트 손해보험(주)

**지금 전화로 보험료만 알아봐도
트렁크정리함이 무료**

**이제 ERGO 다음을
만나야 할 때!**

5.6월에 자동차 보험이 만기라면
전화만 해보세요
▶기간: 2012년 5월 31일까지
(매일 오전 9:00 ~ 오후 6:00)

쉽두쉬만한 전화번호
1544-1666 ERGO 다음